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노숙인 위한 '설 합동 차례' 열어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제공>

광주지역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에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돌봄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회장 이봉문 신부)가 이번 설 명절에 노숙인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는 설 당일인 지난 1일 호남동 성당 교육관에서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지 못하는 노숙인들을 위해 '아름다운 동행 설 명절 합동 차례'를 마련해, 명절의 기쁨과 행복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김희중 대주교를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참석한 노숙인들은 조상들을 떠올리며 차례를 지냈다. 김희중 대주교는 "올해는 호랑이의 해입니다. 용맹이 있고 추진력이 좋다고 합니다.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희망하고 꿈꾸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잘 추진되어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며 새해 덕담을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이엔에스, 폐자재 재활용해 모은 성금 120만원 기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그린이엔에스(대표이사 이숙희)가 최근 KT현장 노사와 함께 1년 동안 자원을 재활용해 모은 성금 120만 4750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성금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저소득 돌봄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그린이엔에스와 환경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사가 힘을 합쳐 활용을 통한 기부를 기약,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

이숙희 대표이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31호 회원이기도 하다. ㈜그린이엔에스 관계자는 "어려운 현장여건에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자 폐기물을 수거하여 1년 동안 모아온 금액을 전달했다"며 "근로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보람된 일을 실천하여 뿌듯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DJ 외교 고문' 조순승 전 의원 별세



1980~1990년대 야당 내 외교통일 문제 최고 전문가로 꼽힌 조순승(趙淳昇) 전 의원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구나우즈시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손아랫동생인 정대철 전 의원이 6일 전했다. 향년 93세.

승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988년 평화민주당 당무위원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전남 구례·승주, 평민당)을 시작으로 15대까지 3선 의원을 역임했다.

정 전 의원은 "1990년대 초에 고인이 나랑 같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우승후 애기를 하면서 'Sunshine Policy'라는 말을 처음 했다"며 "고인은 그 전부터 여러 글에서 이 표현을 사용했다"고 회고했다.

/연합뉴스

인사

◆대법원

[전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춘화 광주지법 부장판사 ▲임태혁 ▲박병태 ▲김성준 ▲김희석 ▲박현수 ▲김성흠 ▲김영아 ▲김용신 ▲김유진 ▲남수진 ▲김혜선 ▲유상호 ▲김희석 ▲김소연 ▲심재광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우진 ▲김영학 광주지법·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 ▲곽상호 광주지법·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이지혜 ▲노연주 ▲전호재 ▲정희영 광주지법·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곽희두 ▲안금선 ▲박병규 ▲백주연 ▲허정훈 ▲정은영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박미리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형순 ▲정선우 ▲노미정 ▲이창섭 ▲김은영 ▲박준범 ▲김성식 ▲지윤섭 ▲신우정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김나영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장석준 ▲강동원 ▲정성민 ▲이영호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김국식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광주고법 판사 김준영 이희성 차기현 김우진 강지연 이민 강동훈 박종웅

◇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법 판사 고준홍 서지혜 최유신 성재민 신호승 ▲광주지방법원 판사 전희숙 김용민 ▲광주지법·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 구현정 ▲해남지원 판사 서효성 원도연 ▲전주지법 판사 임현준 김수민 이극진 허윤범

[파견 복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법·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김태준

호남대 한국어교육원, 2021학년도 겨울학기 수료식



호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원장대행 이경은)은 최근 교육원 내에서 정규과정을 수료한 119명의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겨울학기 수료식'을 진행했다. 수료식에서 린위난·당상화·천명지(이상 중국) 등 14명이 모범상을, 차이쑹초·명량·쉬귀야오(이상 중국) 등 7명이 개근상을 각각 받았다.

<호남대 제공>

인애종합사회복지관, 독거 어르신에 행복밥상 전달



인애종합사회복지관이 최근 설 명절을 맞아 봉선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사회 내 업체를 통해 독거 어르신 56가정에 소불고기, 소고기묵, 잡채, 나물3종, 전3종, 과일3종, 유과, 식혜 등 총 17종으로 구성된 행복밥상을, 저소득가정 24가정에 명절선물을 전달했다.

<인애종합사회복지관 제공>

TV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programs for the day.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EBS1 programs including news, documentaries, and entertainment.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7일(음 1월 7일 辛卯)

☎ 010-9790-8237

36년생 마련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무방하다. 48년생 원하고 있었던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60년생 현상 유지나 정체는 무의미하다고 볼 것임으로 다소 힘들더라도 밀어붙여야 한다. 72년생 마음을 놓은 데서 실수가 비롯되는 법이다. 84년생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맞다. 96년생 정반대의 판도로 비화된다. 행운의 숫자 : 28, 97

37년생 부실한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의도했던 방향으로의 전개가 순탄하리라. 49년생 다수의 어중간함보다는 소수의 확실함이 더 낫다. 61년생 전폭적인 성원이 발전의 촉매제가 된다. 73년생 대지 위의 초목은 폭풍우를 맞고 강해지는 법이다. 85년생 상호 간에 쉽게 통할 수 있느니라. 97년생 장기간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라. 행운의 숫자 : 04, 94

38년생 가장 직접적인 것이 제일 실속있으리라. 50년생 만사를 제쳐두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맞다. 62년생 순발력을 요하는 때이니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맞다. 74년생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을 집어라. 86년생 독특한 양상으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 98년생 끝까지 유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행운의 숫자 : 14, 86

39년생 주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형국이다. 51년생 성공에 대비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요구된다. 63년생 기회가 왔을 때 잡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 75년생 얼마만큼 치밀한 상황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 판이해진다. 87년생 한 번 나타난 정황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99년생 행운이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 07, 92

40년생 전환의 기회가 있으니 잘 활용해 보자. 52년생 적극적인 공격보다 더 완벽한 방어책은 없다. 64년생 위상을 달릴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76년생 오히려 상대가 더 바라고 있던 바이기도 하다. 88년생 차마 밝히기 힘든 고민이 보일 것이니 조용히 해결토록 하라. 00년생 비약하면 무리가 따른다. 행운의 숫자 : 38, 71

41년생 편리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맞다. 53년생 지나치게 쉬운 진귀함이 보인다. 65년생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큼 뜻 깊은 체험이 될 것이다. 77년생 필연적으로 격돌할 수밖에 없는 마당이다. 89년생 시간을 끄는 지혜보다 신속한 추진력이 필요할 때이다. 01년생 소비적이라면 반드시 고려해 봐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13, 51

42년생 되풀이한다고 해서 만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4년생 탐시 애를 먹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겠다. 66년생 흥기가 왕성하니 오래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78년생 현재의 면모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의 추세까지 감안하는 것이 맞다. 90년생 하등에 우려할 바가 아니다. 02년생 그릇이 커야 많이 답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6, 53

43년생 예상 했던 바와 정반대로 될 수도 있다. 55년생 마음만으로는 아니 되니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하자. 67년생 발전적으로 이동하는 대국이다. 79년생 신은 결코 행동하지 않는 자를 듣지 않는 법이다. 91년생 주변의 개별적 의사를 전혀 의식할 필요 없으니 주대를 갖고 밀어붙여라. 03년생 커다란 변화가 생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1, 55

44년생 긴장하지 않는다면 놓칠 수도 있느니라. 56년생 오랜 인연으로부터 비롯되는 바가 깊고도 크다. 68년생 가장 쉬운 것부터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0년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92년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04년생 근거가 없다면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06, 60

33년생 오히려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다. 45년생 마음만 있을 뿐, 실행하기 힘든 판세이니 참으로 애석하기 그지 없었다. 57년생 한 번에 끝낼 일을 여러 번 나눠서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69년생 발전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교류가 있다. 81년생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하다. 93년생 진정한 행동이 요구된다. 행운의 숫자 : 22, 68

34년생 말단은 사소하지만 파급 효과는 엄청날 수도 있다. 46년생 복이 지나치면 도리어 재앙이 생기는 법이다. 58년생 유사하게 반복될 것이니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느니라. 70년생 수훈가 아니라 실속임을 분명히 알자. 82년생 기존의 틀이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위험하다. 94년생 자율적인 것이 변하리라. 행운의 숫자 : 20, 66

35년생 예견했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리라. 47년생 구름을 버리고 참신함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9년생 부합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느니라. 71년생 대처해 나아가는 방식과 기교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83년생 땅이 꺼져서 한숨을 일이 생긴다. 95년생 계속 진행되는 다면 진도양양하리라. 행운의 숫자 : 16, 95